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일인 지난 16일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과 진도불교사암연합회가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바라는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열린 추모법회에는 참사 직후 230여 일 간 구호활동을 벌여왔던 긴급재난구호봉사단 스님과 자원봉사자들 비롯해 조계종립 송광사와 금산사, 화엄사, 대흥사, 선운사 등 호남지역 교구본사 및 지역 사찰 스님과 신도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과 진도불교사암연합회가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일인 지난 16일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바라는 1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 “우리는 그 아픔을 생각할 겁니다”

## ‘세월호 참사 1주기’ 팽목항 추모법회 현장

긴급재난구호봉사단 부분부장 금강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법회는 천수경 독송, 관음기도 정근, 축원, 추모사 낭독, 추모사 낭송, 천도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금강스님은 추모사에 앞서 “팽목항에서 스님들이 장기간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고 인사를 전하고 “한 달 전 실종자 가족들이 찾아와 ‘배 안에 아직도 아이들이 있어 잠을 잘 수 없다’며 기도를 부탁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정부는 죽은 시신이라도 안고 싶은 가족의 마음을 생각해 인양과 시령령 폐기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재난구호봉사단 단장 범일스님 또한 실종자 9명의 이름을 차례로 부르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범일스님은 “지난해 12월18일 정부가 수습 중단을 선언했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한 미완의 종료였다”며 “지역 스님들과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1주기 추모법회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기도하실 때 꼭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해 마음을 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호남지역 교구본사 스님들은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며 간절한 기도를 이어갔다.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영관스님은 “꿈과 희망 가득한 아이들이 차가운 남쪽 바다 한 가운데 갇혀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가족들이 슬픔을 거두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발원했다.

230여일 구호활동 펼쳐온 긴급구호봉사단 지역사암

선체 인양 실종자 수습될 때 비로소 ‘참사 아픔’ 치유...

“앞으로 기도할 때는 꼭 희생자 실종자 위해 마음을 내달라” 한 목소리

제22교구본사 대흥사 주지 범각스님은 “조금 전 대통령이 세월호 인양에 대한 대국민 선언을 했으나 인양이 확실이 이뤄질 때까지는 가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 없을 것”이라며 “사태의 책임자를 찾지 못하고

가족의 바람을 들어주지 못하는 국가는 국민이 의지할 수 없다”고 말하며 조속한 선체 인양을 촉구했다. 이날 법회가 봉행되기 전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팽목항을 방문해 “사고해역에 있는 9명의 실종자 수습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인양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팽목항을 찾은 추모객들은 확실한 인양이 이뤄지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도 인양에 대한 확답과 실천 없는 세월호의 아픔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경스님은 “지난 1년간 스님과 불자들이 이어온 간절한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에 돌아오길 바란다”며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이유를 막론하고 선체를 인양해 실종자 수습이 이뤄질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모법회는 추모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남은 값지만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보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여, 용서할 수도 잊을 수도 없는 세월호여, 4월16일 팽목수도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리는 그 아픔을 생각할 겁니다.”

법회에는 1년 전 긴급재난구호 봉사활동을 펼쳤던 100여명의 봉사단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1년 전 참사 직후 팽목항에서 구호활동을 했던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스님은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서울에서 올라온 한 봉사단원은 “1년 전 참사 때처럼 보고 또 봐도 가슴이 아프다”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에 안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지난 3월16일부터 임시법당에서 하루 두 번 진행해왔던 30일 기도도 이날 회향했다.

진도=이경민 기자

“스님,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스님, 우리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중 한명인 단원교 교사 고(故)양승진 씨 가족이 추모법회에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부탁했다.

“아들아, 보고 싶은 아들아, 벌써 1년이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18년 동안 너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 어미 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갔단 말이나. 용서해라. 내 귀한 아들 승진아. 곧 만나는 날이 올 거다. 기다리고 있을게. 혼자 남은 이 어미를 용서해라” 누구보다 자랑스러웠던 아들이 팽목수도 차가운 바다 속에 사그라져 간 1년 전

그 날, 하루라도 빨리 아들을 찾고 싶은 어미의 울음이 팽목항에 울려 퍼졌다. <사진>

이날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실종자 양승진 씨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2시간 가량 진행된 법회 내내 허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다가도, 아들의 흔적 하나라도 찾고 싶은 간절함으로 수십 번 절을 하고 주저 앉기를 반복했다. 법회가 끝날 무렵, 어머니는 단상에 올라 가족의 부축을 받으며 2장의 편지지에 빼곡하게 써내려간 글씨를 목메는 소리로 읽어내갔다. “아들아, ‘내 아들 승진아’ 노모의 절규에 바다는 대답이 없었다.

진도=이경민 기자

## “범종 소리 듣고 극락왕생하시길”

### 조계사 등 전국사찰 추모타종 결사본부 “시령령 제정” 성명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타종식이 거행됐다. 참사 1주기 당일인 오전10시 조계사에서 진행된 타종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종하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 등 부·실장 스님, 특보단장 정념스님 등이 참석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스님은 “희생자들이 범종 소리를 듣고 극락왕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계종 종립 동국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교 교사 고(故)최해정(동국대 역사교육과)동문의 추모식을 열었다. 고인의 추모비 앞에서 진행된 추모식에는 박정국 동국대 학술부총장을 비롯

해 역사교육과 동문 및 재학생 등 100여 명이 함께 했다. 한철호 역사교육과 주임 교수는 추념사에서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이 나가겠다고 한 최해정 동문과 다른 세월호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마음과 생각에 새기자”며 “그것이 산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에서 열린 합동추모식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고인의 아버지 최재규 씨는 역사교육과로 보낸 추모의 글에서 “자식과 부모로 함께한 너무나 짧았던 인연을 앞으로도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참사 원인에 대한 명백한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특별법은 특별위원회가 요구하는 시령령으로 새롭게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경 기자·이경민 기자



조계종이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 사찰에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타종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서울 조계사 타종식. 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 “정신적 의지처 역할 다하고 있는가”

###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3대 종교연구소 세미나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불교계가 해온 일은 적지 않은 뿐 아니라 결코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생존자와 유가족을 비롯해 이 사회가 불교의 활동에 대해 냉랭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윤리학적 물음에 대해 종교가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학’적 물음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종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불교사회연구소,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3대 종교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박병기 교수는 ‘세월호의 윤리학과 불

교의 역할’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위해 불교계가 그간 해온 활동들이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가족을 비롯해 이 사회가 불교의 활동에 대해 냉랭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근거로 윤리학적 물음에 대해 종교가 해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윤리학’적 물음에 대한 질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가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종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불교사회연구소,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3대 종교 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 2015학년도 후기

#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 일반대학원

### 1. 모집과정 및 학과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 상담학 • 문화재학	8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 문화재학	6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 2.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3) 대한민국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하는 타 종단 승려
-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개설과목(선승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3. 전형일정

- 1) 원서 교부 : 2015. 4. 20(월) ~ 5. 8(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2) 원서 접수 : 2015. 5. 4(월) ~ 5. 8(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3) 전 형 일 : 2015. 5. 14(목) 13:00 ~
- 4) 합격자발표 : 2015. 5. 19(화)
- 5) 등록 기간 : 2015. 5. 28(목) ~ 6. 2(화)

### 4.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대학원장실
- 2) 시간 : 2015. 5. 14(목) 13:00 ~

### 5.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 1부
-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 1부
- 3) 석사과정 : 학사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박사과정 : 석사학위취득증명서 또는 예정증명서 ..... 1부
-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 ..... 1부
- 5) 최종수계증명서 (조계종 총무원 발급, 3개월 이내) ..... 1부
-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 7) 주민등록등본 ..... 1부

- 8) 칼라사진 제출(가사 수한 사진 3x4cm) ..... 5매
- \*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취득 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15. 8. 28 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 무료
- 2) 전형료 : 박사과정 80,000원 / 석사과정 60,000원

### 7. 사정원칙

-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허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함.

### 8. 지원자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 특전

- 1) 석사학위 취득 및 박사학위과정 수료시 승가고시시험행령에 의거 3급 고시 응시 자격에 혜택이 있음
- 2) 조계종 승려(구족계수지자 및 인연4월 구족계수지예정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 3) 학업 우수 학인을 선발하여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기간 전액 장학 혜택부여
- 4) 각종 교내·외 장학금 지급